

## 개웅산 둘레길 10

개웅산 한 바퀴로 스트레스 짝~

걷는구간	배드민턴장 → 봉화정(삼거리) → 개웅정 → 개웅초등갈래길 → 유아숲체험장
걷는거리	3.0km
소요시간	1시간 30분
추천시기	사계절
난이도	★ 초급코스

개웅산(126m)은 구로구 오류동과 개봉동의 경계가 되는 완만한 높이의 동네 뒷산이다. 오류동과 개봉동 일대의 지형이 움푹 들어간 있는 덕분에 난리가 날 때마다 총탄이 개웃개웃(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저쪽으로 자꾸 귀엽게 조금씩 기울이는 모양이란 뜻의 북한어) 피해가서 개웅마을이라 불렀는데, '개웅산'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다. 또한 개웅산에서 봉화를 올렸다 하여 봉화대(烽火臺)라고도 불리었는데, 3·1운동 때 마을 주민들이 이 산에서 봉화를 올리며 일제에 항거하였다고 전해진다.

'개웅산 둘레길'은 이름 그대로 개웅산의 중간 능선을 따라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길을 말한다. 경사가 완만한 산길은 쉬엄쉬엄 오르내릴 수 있고, 산 전체가 단풍나무, 아카시아, 소나무, 참나무, 물레나무, 바위취 등 다양한 식생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구로구에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숲 사이사이로 약수터, 배드민턴장, 정자 같은 쉼터, 유아숲체험장 등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눈비가 내려도 얼마든지 편하게 산책할 수 있다.



유아숲체험장에는  
'장난꾸러기 모래놀이터',  
'몸튼튼 놀이터', '도란도란  
침터', '뚝뚝 숲속교실'  
등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  
어린이들의 숲 속 놀이터로  
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.





개웅정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은 기대하지 않았던 큰 수확이다. 도덕산, 천왕산, 양지산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지고, 서울 서남부와 광명경륜돔경기장도 한눈에 들어온다. '작은 고추가 맵다'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개웅산의 낮은 높이에 비해 시야가 탁 트인다. 그 순간, 가슴이 뻥 뚫리면서 일상의 스트레스가 짝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.





- ☞ 지하철 1호선 개봉역 1번 출구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구로03번 마을버스로 환승. 개봉한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개웅산생활체육관 방향으로 걸어가면 배트민턴장이 나온다.
- ☎ 02-860-2265 구로구 공원녹지과
- ⓐ 이용시간 제한 없음  
화장실과 식수대는 배트민턴장에 있음  
유모차·휠체어 이용 불가능  
별도 주차장 시설 없음

